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가정폭력이 대학생의 연인관계와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서 경 현[‡]
삼육대학교
상담학과

최 수 동
삼육대학교
교양교직과

김 익 현
삼육대학교대학원
상담교육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어머니에 대한 폭력이 대학생의 연인관계의 질과 남학생의 경우 데이트 폭력 가해, 그리고 여학생의 경우 데이트 폭력의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의 참여자는 데이트 경험이 있는 490명(남: 211, 여: 279)의 대학생들이었고, 그들의 연령 분포는 16세에서 42세($M=21.48$, $SD=3.42$) 사이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심리검사는 Rohner의 부모수용거부질문지와 정원식의 자율통제가정환경진단검사로 구성된 부모양육질문지, 이경성과 한덕용의 상호이해, 관계만족 및 관계개입 척도, Straus의 갈등척략척도, Foo와 Margolin의 데이트 폭력 정당화 척도이다. 분석 결과,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자녀가 연인관계에서 상대를 이해하고 관계에 만족하는 수준과 상관이 있었다. 아버지의 양육태도로 아들의 연인관계에서의 상호이해와 그 관계에 만족하는 수준을 약 15%가량 설명할 수 있었다. 특히, 통제적인 아버지를 둔 아들의 연인관계 질이 낮았다. 아버지의 수용적 양육태도와 자율적 양육태도는 남학생의 데이트 폭력 가해는 물론 여학생의 데이트 폭력 피해와도 부적상관이 있었다. 아버지의 수용적 양육태도는 남학생의 데이트 폭력 가해에 대해 아버지의 가정폭력보다도 더 가장 강력한 예언변인이었다.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가정폭력 목격 경험은 남학생의 데이트 폭력 가해와 여학생의 데이트 폭력 피해에 대한 유의한 예언변인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정폭력 경험과 데이트 폭력간의 관계를 재확증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연인관계의 질 및 데이트 폭력 간의 관계를 부각시키는 것이다.

주요어 :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 아버지 양육태도, 관계만족

[†] 이 논문은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서경현 (139-742)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26-21 삼육대학교 상담학과
전화 : 02) 3399-1676 E-mail : khsuh@syu.ac.kr

입시에 매달리던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면서 이들에게는 이성을 사귄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된다. 이들은 대학을 다니면서 로맨틱한 데이트를 꿈꾸고 자신의 이상형을 찾아 연인관계를 맺으려 한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듯 이들은 이성관계가 언제나 로맨틱한 것은 아니고 상대가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점과 자신이 기대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런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연인들은 다양한 전략을 사용한다. 적절한 방식으로 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면 그 관계가 더욱 돈독하게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헤어지거나 심하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으로 고통할 수도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기준이나 기대에 기초하여 관계를 형성한다고 가정한다면(Thibaut & Kelley, 1959), 기준과 기대라는 인지적 구조는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었을 것이다. Higgins(1989)는 이성관계에서 사람들은 이상(Ideal)을 가지고 있고, 그 관계에서 이상적인 보상을 얻으려고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기대했던 보상이 충족되면 관계에 만족하고 관계에 더욱 개입하게 될 것이다. 상대가 자신이 기대하는 것, 즉 이상에 가깝다고 느낄수록 상대와 상호이해가 잘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이경성, 2004). 이경성과 한덕웅(2005)의 연구에서는 미혼 남녀들이 상대가 배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구속한다고 생각하면 이성관계에 만족하지 못하고 개입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로 미혼 남성으로부터는 자신의 아버지가 어머냈기 때문에 이성친구나 결혼상대에게 자신은 어떤 것이며, 미혼 여성으로부터는 어떤 남성과 교제할 것이고 어떤 남성과는 교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듣는다. 그런 신념은 아버지가 자신들을 양육하면서 보인 태도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방식은 자녀의 자아탄력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장진아, 신의천, 2006). 자아탄력적인 사람들은 갈등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지만(Block & Kremer, 1996), 자아탄력성이 부족한 사람들은 환경적 변화와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여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입힌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기면 자신을 과소통제 하거나 과잉통제 한다. 따라서 데이트 하면서 발생한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여 폭력을 행할 수 있고, 그 폭력에 대한 반응으로 신체적 공격을 당할 수 있다. 또한 과잉통제, 즉 폭력적 행동을 묵과하거나 속으로 참아버리는 것이 피해를 지속적으로 당하게 할 수 있다.

부적절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를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하게 만들어 대인관계에 문제를 갖게 한다고 알려져 있다(허재홍, 2006; Bruch, Heimberg, Berger, & Collins, 1989; Parker, 1979). 특히 아버지가 거부적인 태도를 가졌을 때 자녀가 사회불안을 느끼고 대인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이 있었다(Arrindell et al., 1989; Parker, 1979). 그리고 Bruch 등(1989)은 부모가 다른 사람의 의견에 너무 신경을 쓰고 자녀의 대인관계를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으면 자녀가 대인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밝혀냈고, 그는 또 다른 연구(Bruch & Heimberg, 1994)를 통하여 이 점을 재확인하였다.

한편, 오경자와 양윤란(2003)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사회불안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계나 사회불안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발견했던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양육태도 척도와는 다른 척도를 사용했기 때문일 수 있다. 오경자와 양윤란의 연구(2003)에서는 부모의 수치심,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경향성, 및 비사교성을 하위변인으로 하는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엄밀히 말하면 부모의 양육태도라기보다 부모의 특성, 즉 가정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수행된 문경주와 오경자(2002)의 연구에서 부모의 특성이 아닌 부모가 양육하는 방식을 변인으로 했을 때 그것이 청소년의 불안과 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하고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척도를 사용하려고 한다.

친밀한 관계에서 행해지는 폭력(intimate violence)은 만성적일 수 있다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다. 이런 폭력은 그 강도가 점차로 강해져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를 수 있다. 미국 FBI(2000)는 살해당하는 여성의 1/3이상이 남편이나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된다고 발표했다. 그 비율이 40%를 넘긴 적도 있었지만(FBI, 1995),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2007년 초 신혼여행 후 폭행을 당해 파경에 이른 한 연예인이 결혼 전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해왔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이 세간에 주목을 받았다. 가정폭력은 한국사회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여겨져 1998년 7월부터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친밀한 관계에서 행해지는 폭력 중에 데이트 폭

력의 경우는 한국사회에 그 심각성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았었다.

연인관계에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시도되는 가장 최악의 책략이 폭력이다(Levy, 1990). 데이트 폭력은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남긴다(서경현, 2001; Levy, 1990). 심각한 것은 이런 데이트 폭력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사회에 편만해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데이트 경험이 있는 사람들 세 명중에 적어도 한 명 이상이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다고 하는데(Levy, 1990), 한국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선행연구들에서도 그 비율과 비슷하게 나타났다(서경현, 2002; 서경현, 2004; 서경현, 김봉진, 정구철, 김신섭, 2001; 서경현, 이경순, 2002; 서경현, 이영자, 2001). 안귀여루(2001)의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의 40%이상이 데이트 폭력 경험을 보고하였고, 김정란(1999)의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50%이상이 데이트 폭력가해 경험을 보고하였다. 만약 데이트 폭력에 언어폭력까지 포함시키면 그 비율이 90%에 이른다(김정란, 1999; Neufeld, Mcnamara, & Ertl, 1999). 따라서 연구자들은 데이트 폭력에 신체적 폭력만을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서양에서는 데이트 폭력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이 많이 탐구되어 온 반면에 한국에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연구가 아직까지 많지 않다. 비교적 많은 연구들이 수행된 서양의 경우에도 어떤 변인들이 데이트 폭력과 어떻게 관계하는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Charkow & Nelson, 2000). 서양과는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온 한국인들이 경험하는 데이트 폭력은 그 양상이 다를 수 있고, 그것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실증적인 연구들이 필요하

다고 하겠다.

가정폭력 경험은 데이트 폭력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논의되어 온 변인이다. 어린 시절에 가정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와 같이 자신도 이성에게 폭력을 행하거나 그것의 피해자 될 가능성이 높다는 믿음을 일반 사람들도 가지고 있다. 부모간에 행해지는 폭력의 목격이 자녀의 데이트 폭력을 유발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여러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그런 가정은 Bandura(1977)가 자녀가 부모의 행동을 모방하여 학습하고 성장 후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그런 행동들을 한다고 설명하는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한 것이다. 데이트 폭력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회학습이론인 Riggs와 O'Leary(1989)의 모델에서는 부모간에 행해지는 폭력의 목격은 전후관계성 변인(contextual variables)으로 "상대방에게 과격하게 행동할까"를 예언해 줄 수 있는 근원적인 변인으로 설명한다. 아내가 남편에게 행하는 폭력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남편이 아내에게 행하는 폭력이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강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행하는 폭력에 대한 목격 경험만을 변인으로 채택하였다.

가정폭력 경험과 데이트 폭력간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들에서 매번 일관된 결과가 도출된 것은 아니다. 어떤 연구들에서는 부모간의 폭력을 목격하는 것이 데이트 폭력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결과를 얻었는가 하면(Riggs, O'Leary, & Breslin 1990; Smith & Williams, 1992; Foo & Margolin, 1995; Foshee, Bauman, & Linder, 1999), 또 다른 연구들에서는 그런 관계를 발견하지 못했다(Comins, 1984; Stets & Pirog-Good, 1987;

Follette & Alexander, 1992; Riggs & O'Leary, 1996). 가정폭력 경험과 데이트 폭력간의 관계가 이렇게 일관적으로 보고되지 않는 이유를 Kaufman과 Zigler(1987)는 가정폭력과 데이트 폭력의 관계가 학자들의 가정하는 만큼 밀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모간에 행하는 폭력을 목격한 비율이 낮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선행연구들에서 부모로부터 체벌을 당한 것까지 포함시켜도 경험 비율이 30%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어떤 조절변인이 존재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서경현(2004)의 연구에서도 성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었고, 서양의 연구들에서는 대개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훨씬 높은 관련성을 보였으나(Foo & Margolin, 1995; O'Keefe, 1997),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Sigelman, Berry, & Wiles, 1984).

본 연구에서 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려는 것이 아니다. 데이트 폭력 중에 남성의 경우 가해만을, 여성의 경우 피해만을 종속변인으로 채택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은 남성의 데이트 폭력 가해와 여성의 데이트 폭력 피해이기 때문이다. 또한 데이트 폭력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가 데이트 폭력 가해 및 피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서경현, 2002; 서경현, 2004; 서경현 외, 2001; Stets & Pirog-Good, 1989; O'Keefe, 1998),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정당화 수준도 종속변인으로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데이트 폭력이란 데이트 중에 상대방에게 행하는 신체적인 폭력을 의미한다. 서양에서는 어떤 것을 상대방에게 던진 것이나 상

대방을 떠밀거나 찌른 것도 신체적 공격 혹은 폭력으로 분류하고 있고, 이제는 한국에서도 이런 행동이 비폭력적인 갈등 해결방식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처럼 모든 신체적 공격 행위를 폭력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부모간에 행해졌던 폭력의 목격도 언어폭력은 배제한 신체 폭력만을 의미한다. 게다가 그것은 부모간에 행해졌던 폭력의 사실 여부가 아니고 그런 폭력을 연구 대상자들이 목격하였는지를 의미한다.

본 연구의 새로운 시도는 간헐적일 수 있는 아버지의 폭력적 모습만큼 지속적으로 양육하면서 보인 태도가 자녀의 이성관계는 물론 데이트 폭력 가해나 피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탐색하는 것이다. 특히 사춘기를 넘긴 자녀의 대인관계, 특히 이성관계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도 다양할 것이지만,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이성관계에 대한 기대나 기준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Higgins(1989)의 주장처럼 이성관계에서 이상적인 기대가 충족되지 못할 때 연인관계의 질은 낮아질 것이고, 그런 관계에서 폭력의 가해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아버지의 어머니에 대한 폭력이 자녀의 데이트 폭력까지는 아니지만 자녀가 연인관계를 발전시키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가정하고 그 관계도 탐색하려고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어머니에 대한 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대학생의 연인관계의 질과 남학생의 경우 데이트 폭력 가해, 그리고 여학생의 경우 데이트 폭력의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는 것이다. 실험연구가 아니면 인과관계를 완전히 결론지을 수는 없지만, 아

버지의 가정폭력을 목격한 대학생의 경험이 데이트 경험보다 선행할 가능성이 크고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아동기부터 점진적으로 인식해 왔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방 법

연구 참여자 및 절차

본 연구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세 대학의 남녀 대학생 490명(남학생 211명, 여학생 279)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총 584명의 대학생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할 수 있었으나 94명으로부터 얻은 자료는 이성친구를 사귀어 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거나 불완전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참여자들의 연령 분포는 16세에서 42세였으며, 연령 평균은 21.48($SD=3.42$)세였다. 대상자들이 보고한 이성을 사귀어 온 평균 기간은 11.20($SD=13.64$)개월이었으며, 사귀어 온 이성친구의 수는 평균 5.80($SD=11.16$)명이었다.

참여자들이 설문지와 검사지에 응답하기 전에 본 연구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개인정보의 누출이 없을 것이며,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고 알렸다. 각 참여자들이 설문에 소비한 시간은 약 20분 정도였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자기보고식 설문을 사용하였다. 서양의 경우에는 면접을 병행하여 조사한 연구들도 있었고, 데이트 폭력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식 중에 면접과 자기보고식 설문으로 얻은 정보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연구자도 미국에서는 면접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해 보았고 한국에서도 시도해 보았으

나, 연구자는 한국인들은 과거 이성을 사귀는 과정에서 일어난 부정적인 사실을 타인과 대면하여 밝히는 것을 극히 꺼리는 것을 깨닫고 익명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에 응답하게 하는 방식을 더 신뢰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통계분석은 교차분석(χ^2 검증)과 t검증, 적률상관분석, 및 단계적 회귀분석이었다. 본 연구를 위한 통계분석은 SPSS 13.0 for Windows에 의해 이루어졌다.

조사 도구

부모양육태도 질문지: 대상자들에 의해 지각된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권순명(1993)이 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Rohner (1981)의 부모수용거부질문지(PARQ: Parental Acceptance Rejection Questionnaire) 60문항 중 한국 문화 환경에 적합한 수용-거부 차원 30문항과 정원식의 가정환경진단검사의 자율-통제 차원 30문항으로 구성된 60문항의 질문지이다. 본 연구자들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하였고,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이 .35이상이 되는 문항을 채택하여 수용적 양육태도 14문항, 거부적 양육태도 12문항, 자율적 양육태도 12문항, 그리고 통제적 양육태도 11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전혀 다르다', 2--'대체로 다르다', 3--'대체로 그렇다', 4--'거의 그렇다'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각 하위척도의 내적 일관도(Cronbach alpha)는 수용적 양육태도 .91, 거부적 양육태도 .82, 자율적 양육태도 .87, 통제적 양육태도 .79였다.

연인관계의 질 척도: 연인관계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이경성과 한덕웅(2003)이 커플 간의 상호이해, 관계만족 및 관계개입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이경성(2004)이 결혼 전 이성관계에 적합한 문항으로 변환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개발 요인분석에서 상호이해 10문항, 관계만족 9문항, 및 관계개입 7문항으로 총 26문항이 추출되었다. 상호이해를 나타내는 문항으로는 "서로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편이다",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다" 등이 있고, 관계만족을 나타내는 문항으로는 "함께 하는 동안은 행복하다", "마지못해 사귄다" 등이 있고, 관계개입을 나타내는 문항으로는 "관계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다", "다른 사람과 사귄 생각이 있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7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전혀 그렇지 않다', 2--'상당히 그렇지 않다', 3--'별로 그렇지 않다', 4--'중간', 5--'약간 그렇다', 6--'상당히 그렇다', 7--'매우 그렇다'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각 하위척도의 내적 일관도(Cronbach alpha)는 상호이해 .82, 관계만족 .87, 관계개입 .73 이었다.

갈등책략 척도: 서경현(2001)에 의해 번안된 Straus의 갈등책략척도(Conflict Tactics Scales, 1979)가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과 데이트 폭력 피해, 그리고 부모간의 폭력 목격과 부모로부터의 가혹체벌을 측정하는데 사용되었다. 본 척도는 자신이 갈등상황에서 이성친구에게 사용했던 책략(20문항), 이성친구가 갈등상황에서 자신에게 사용했던 책략(20문항), 아버지가 갈등상황에서 어머니에게 사용했던 책략(20문항)이 측정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폭력을 사용한 책략을 포함한 각 10문항씩만을 설문지에 포함시켰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없다', 2--'한

번', 3--'두 번에서 세 번', 4--'네 번에서 다섯 번', 5--'여섯 번 이상'으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11번에서 20번까지가 신체적 공격을 나타내는 문항으로 갈등상황에서 신체적 폭력을 측정하는데 사용되었는데, "어떤 것을 던졌다", "떠밀거나 찼다", "손바닥으로 때렸다", "발로 차거나 이로 물거나 주먹으로 쳤다", "어떤 것으로 때렸거나 때리려고 했다", "심하게 구타했다", "칼 혹은 다른 무기로 위협했다", "칼 혹은 다른 무기를 사용했다", "성적 행동을 하기 위해 물리적 힘을 사용했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사용하여 성행위를 하려고 시도했다"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척도의 신체적 폭력을 측정하는 10문항의 Cronbach alpha값은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이 .82, 데이트 폭력 피해가 .81,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폭력 목격이 .89였다.

데이트 폭력 정당화 척도: 데이트 폭력을 사용하는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Foo와 Margolin의 폭력 정당화 척도(Justification of Violence Scale, 1995)를 변안해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참여자들이 여덟 가지 상황 하에서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절대 그러면 안 된다', 2--'심하지 않

으면 괜찮다', 3--'그럴 수도 있다', 4--'맞을 짓을 했으니 당연하다'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여덟 가지 상황들은 상대방이 헤어지자고 위협할 때, 술 취해 정신 나간 짓을 할 때, 논쟁을 하다가 상대방이 먼저 때릴 때, 상대방이 자신을 속인 것이 드러났을 때, 자신을 욕이 섞인 호칭으로 불렀을 때, 상대방이 다른 이성과 노닥거릴 때, 가족이나 친구들 앞에서 자신을 바보로 만들 때, 다른 친구들을 만나러 가지 못하게 할 때로 묘사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8에서 32까지이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관도 Cronbach alpha값은 .82를 나타냈다.

결 과

연인관계에서의 상호이해, 관계에 대한 만족과 개입, 및 데이트 폭력의 성차

연인관계에서의 상호이해, 관계만족, 관계개입에 성차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이성관계에서의 관계만족($t(488)=3.47, p<.01$), 관계개입($t(488)=4.45, p<.001$)에서 유의한 성차가 발견되었다. 이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이성관계에서 만족을 덜 느끼고 관계에도 덜 몰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학생의 25.6%와 여학생의 44.4%가 데이트 도중 상대방에게 신체적인 폭력을 가한 경험이

표 1. 연인관계에서의 상호이해와 관계에 대한 만족 및 개입의 성차

변인	남성(n=211)		여성(n=279)		t
	M	SD	M	SD	
상호이해	38.90	8.78	37.69	9.96	1.40
관계만족	39.35	9.45	36.27	9.96	3.47**
관계개입	24.66	6.91	21.68	7.64	4.45***

** $p<.01$, *** $p<.001$.

있다고 보고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1, N=490)=18.46, p<.001$. 또한 남학생의 40.8%와 여학생의 36.9%가 데이트 도중 상대방으로부터 폭력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런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 아니었다. t검증에서도 데이트 폭력 가해($t(488)=-2.67, p<.01$)와 피해($t(488)=2.45, p<.05$)에서도 유의한 성차가 발견되었다(표 2 참고).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가정폭력 목격과 연인관계 및 데이트 폭력간의 관계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가정폭력 목격과 연인

관계는 물론, 데이트 폭력과 관계가 있는지를 남녀로 나누어 상관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아버지 양육태도의 하위변인이 남학생과 여학생의 연인과 상호이해 하는 것, 그리고 관계에 만족하는 것과 밀접한 정적 혹은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학생의 경우 더욱 그랬다. 수용적 양육태도와 자율적 양육태도는 남녀 모두의 연인과의 상호이해 및 관계만족과 정적상관이, 거부적 양육태도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통제적 양육태도는 남학생의 연인과의 상호이해 및 관계만족과 부적상관이 있었으나, 여학생에게서는 그런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2. 남녀 대상자들의 데이트 폭력 가해 및 피해

변인	남성(n=211)		여성(n=279)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데이트 폭력 가해 수준	1.24	3.73	2.18	3.73	-2.67**
데이트 폭력 피해 수준	2.26	4.58	1.38	3.35	2.45*
	없음(%)	있음(%)	없음(%)	있음(%)	χ^2
데이트 폭력 가해 여부	74.4	25.6	55.6	44.4	18.46***
데이트 폭력 피해 여부	59.2	40.8	63.1	36.9	.75

* $p<.05$, ** $p<.01$, *** $p<.001$.

표 3.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가정폭력과 남학생의 연인관계 및 데이트 폭력 가해 남학생 및 피해 여학생 간의 상관행렬

변인	수용적	거부적	자율적	통제적	가정폭력
상호이해	.21**	-.15*	.35***	-.24**	-.02
	.16**	-.13*	.16**	-.03	-.04
관계만족	.22**	-.14*	.35***	-.22**	-.04
	.14*	-.18**	.14*	-.08	-.05
관계개입	-.01	-.02	.12	-.14*	-.01
	-.08	.07	-.04	.05	.01
데이트 폭력 정당화	-.09	.12	-.13	.21**	.14*
	-.01	.14*	-.02	.12*	.03
데이트 폭력 가해(남학생)	-.20**	.00	-.15*	.07	.18**
데이트 폭력 피해(여학생)	-.22***	.08	-.14*	.05	.28***

* $p<.05$, ** $p<.01$, *** $p<.001$.

주. 위는 남학생(n=211)의 상관계수이고 아래는 여학생(n=279)의 상관계수이다.

특히, 아버지의 자율적 양육태도는 남학생의 연인관계에서의 상호이해 및 관계만족과 밀접하게 정적으로 상관이 있었으며($r(209)=.35, p<.001$), 여학생의 연인에 대한 상호이해($r(277)=.14, p<.01$) 및 관계만족($r(277)=.14, p<.05$)과도 정적상관이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남녀 대상자들이 연인관계에 개입 혹은 몰입하는 정도와는 그다지 관계가 없었다. 다만,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태도가 남학생이 연인관계에 개입하는 수준과 부적으로 관계가 있었을 뿐이다, $r(209)=-.14, p<.05$. 한편,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행하는 가정폭력을 목격한 것은 연인관계에서의 상호이해, 관계만족, 및 관계개입과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아버지의 수용적 양육태도와 자율적 양육태도는 남학생의 데이트 폭력 가해는 물론 여학생의 데이트 폭력 피해와 부적상관관계가 있었다. 한편,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태도는 남녀 대상자들의 데이트 폭력 정당화와 정적으로 상관이 있었으며, 거부적 양육태도는 여학생의 데이트 폭력 정당화와 정적상관이 있었다, $r(277)=.14, p<.05$.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행하는 가정폭력을 목격한 것은 남학생의 데이트 폭력 가해($r(209)=.18, p<.01$), 여학생의 데이트 폭력 피해($r(277)=.28,$

$p<.001$) 모두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한편,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행하는 가정폭력을 목격한 것은 남학생의 데이트 폭력을 정당화한다는 신념과도 정적으로 상관이 있었다, $r(209)=.14, p<.05$.

연인관계의 질에 대한 예언변인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가정폭력으로 대학생 연인관계의 질, 즉 상호이해, 관계만족, 그리고 관계개입을 예언할 수 있는지를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나누어 검증하였다.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나누어 검증한 것은 앞선 분석에서 연인관계의 특성에 두드러진 성차가 있었기 때문이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아버지의 수용적($\beta=.22, p<.05$), 자율적($\beta=.49, p<.001$), 그리고 통제적($\beta=-.16, p<.05$) 양육태도가 연인과의 상호이해를 예언할 수 있는 유의한 예언변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량은 약 16%였다. 남학생의 연인관계에서의 관계만족에는 자율적($\beta=.49, p<.001$) 및 통제적($\beta=-.16, p<.05$) 양육태도가 유의한 예언변인이었고, 설명량은 약 14%였다. 아버지의 자율적 양육태도가 남학생의 연인관계의 질에 대한 더 강력한 예언변인이었다.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태도가 남학생의 관계개입의 유의한 예언변인이었으나, 그것의

표 4. 연인관계에서의 남학생의 상호이해와 관계만족 및 관계개입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변인	상호이해		관계만족		관계개입	
	β	t	β	t	β	t
수용적 양육	.22	2.07*				
거부적 양육						
자율적 양육	.49	4.55***	.32	4.82***		
통제적 양육	-.16	-2.51*	-.15	-2.20*	-.14	-2.02*
가정폭력 목격						
R ²	.17		.15		.02	
Adjusted R ²	.16		.14		.02	

* $p<.05$, ** $p<.01$, *** $p<.001$.

변량을 약 2%밖에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목격한 것은 연인관계의 질을 유의하게 예언하지 못했다.

한편, 아버지의 자율적 양육태도($\beta=.16, p<.01$)가 여학생의 연인관계에서의 상호이해, 그리고 거부적 양육태도($\beta=-.18, p<.01$)가 여학생의 관계만족에 대한 유의한 예언변인으로 나타났으나, 설명력이 2~3%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표 5 참고). 이런 결과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딸보다는 아들의 연인관계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예언변인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가정폭력으로 대상자의

데이트 폭력에 대한 신념과 남학생의 데이트 폭력 가해 및 여학생의 데이트 폭력 피해를 예언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태도($\beta=.21, p<.01$)가 남학생이 데이트 폭력에 대해 정당화하는 수준을, 그리고 아버지의 수용적 양육태도($\beta=-.17, p<.05$)와 아버지의 가정폭력($\beta=.14, p<.05$)이 데이트 폭력을 가해 수준을 유의하게 예언할 수 있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그 설명력은 약 5% 정도였다.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목격한 것보다 아버지의 수용적 양육태도가 데이트 폭력 가해의 더 강력한 예언변인이었다.

여학생의 경우, 아버지의 거부적 양육태도(β

표 5. 연인관계에서의 여학생의 상호이해와 관계만족 및 관계개입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변인	상호이해		관계만족		관계개입	
	β	<i>t</i>	β	<i>t</i>	β	<i>t</i>
수용적 양육						
거부적 양육			-.18	-3.01**		
자율적 양육	.16	2.66**				
통제적 양육						
가정폭력 목격						
R^2	.03		.03			
Adjusted R^2	.02		.03			

** $p<.01$.

표 6. 남학생의 데이트 폭력 정당화와 가해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변인	데이트 폭력 정당화		데이트 폭력 가해	
	β	<i>t</i>	β	<i>t</i>
수용적 양육			-.17	-2.39*
거부적 양육				
자율적 양육				
통제적 양육	.21	3.17**		
가정폭력 목격			.14	1.99*
R^2	.05		.06	
Adjusted R^2	.04		.05	

* $p<.05$, ** $p<.01$.

$\beta=.21, p<.01$)가 데이트 폭력에 대해 정당화하는 수준을 유의하게 예언할 수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나 그 설명력(2%)은 미미했다(표 7 참고). 여학생의 데이트 폭력 피해는 아버지의 수용적 양육태도($\beta=-.16, p<.01$)와 아버지의 가정폭력($\beta=.25, p<.001$)이 유의하게 예언할 수 있는 변인이었으며, 설명력은 약 10%였다. 아버지의 수용적 양육태도보다 아버지의 가정폭력 목격이 더 강력한 예언변인이었다. 이런 결과는 아버지의 수용적 양육태도가 남학생의 데이트 폭력 가해와 여학생의 데이트 폭력 피해를 방지하고 아버지의 가정폭력이 그것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자신의 연인관계에 덜 만족하고 개입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성(2004)에 의해 수행된 연구가 이 부분을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지만, 그 연구에서도 관계에 만족하고 개입하는 것을 묻는 문항들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런 차이가 여학생이 연인관계에 대해 기대하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인지, 관계에

깊이 개입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남학생이 관계에 더 집착하는 것인지, 척도에 반응하는 방식에 다르기 때문인지는 추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연구자들은 데이트 경험이 있는 대학생 세 명 중에 한 명 정도가 데이트 도중에 생긴 갈등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하였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을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적게 보고하였다. 이는 한국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일련의 연구들(서경현, 2004; 서경현, 이경순, 2002; 서경현, 이영자, 2001)의 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데이트 폭력의 가해 비율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 연구자들도 서양에서 수행된 수많은 선행연구들 중에서도 남성의 데이트 폭력 가해경험 비율이 여성의 그것보다 더 높게 나타난 연구를 본 적이 없고, 대부분 유의한 성차가 없거나(예: Henton et al., 1983, Stets & Henderson, 1991), 여성의 가해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Foshee, 1996; Plass & Gessner, 1983).

여성이 남성보다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을 더 빈번하게 보고하는 이유는 데이트 폭력의 정의와

표 7. 여학생의 데이트폭력 정당화와 피해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변인	데이트 폭력 정당화		데이트폭력 피해	
	β	t	β	t
수용적 양육			-.16	-2.78**
거부적 양육	.14	2.31*		
자율적 양육				
통제적 양육				
가정폭력 목격			.25	4.21***
R ²	.02		.10	
Adjusted R ²	.02		.10	

* $p<.05$, ** $p<.01$, *** $p<.001$.

그 정의에 근거한 설문 문항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장난으로 밀친 것이야 데이트 폭력이라고 할 수 없지만 갈등상황에서 떠밀거나 팔을 비트는 행동은 데이트 폭력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양적인 연구를 통해서 데이트 폭력의 질적인 면을 설명하기란 쉽지 않지만 대상자들이 갈등척략척도에 응답한 결과를 보면,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은 대개 상대방에게 무엇인가 던진 경험, 떠밀거나 찌른 경험 혹은 손바닥으로 때린 경험 정도로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대부분 심각한 피해자는 대개 여성인 것으로 나타난다(Levy, 1990). Archer(2000)가 메타분석을 한 결과에서도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신체적인 공격을 약간 더 빈번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신체적으로 상처를 입힐 정도의 폭력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의 62%가 여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Molidor와 Tolman(1998)의 연구에서는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 비율에는 성차가 없었지만, 폭력을 행한 이유를 자기방어였다고 보고한 남학생들은 6%인데 반해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37%가 자기방어가 폭력을 행한 이유라고 보고했다. 그리고 남학생들은 데이트 폭력을 그리 위협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 반면에, 여학생들은 그것을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심각한 상처를 주는 폭력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여자 청소년보다 남자 청소년들의 신체적·성적 폭력이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 영국의 한 연구에서도 증명되었다(Hird, 2000). 여성이 당하는 데이트 폭력은 가정폭력보다는 그 기간이 다소 짧을 수 있지만 가정폭력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 데이트 폭력에 개입하는 전문가들은 데이트

도중에 폭력이 발생하면 결혼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정폭력보다도 데이트 폭력이 더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 믿고 있다.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자녀들의 연인관계의 질과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었다. 관계에 개입하는 수준과는 별 상관이 없었으나, 상대를 이해하고 관계에 만족하는 수준과는 크게 상관이 있었다. 그런 관계는 남학생들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태도로 아들의 연인관계에서의 상호이해와 그 관계에 만족하는 수준을 약 15%가량 설명할 수 있었다. 특히, 아버지가 통제적으로 양육하면 아들의 연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여학생의 연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남학생에 비해 미미한 것은 아버지의 역할 모델링이 같은 성(gender)인 아들에게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통제적인 아버지로부터 양육된 아들은 사회적인 학습으로 인해 이성친구를 이해하지 못하고 통제하고 조정하려 들 수 있고, 그런 통제하려는 노력에 상대가 적절히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관계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남녀 모두 아버지가 수용적이고 자율적이라면 그 역할 모델로 학습하여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가 가진 자신과 다른 점을 수용하려고 할 것이다. 그럴 때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연인관계에 만족하게 될 것이다. 한편 아버지의 거부적인 양육태도는 연인관계에서 상호이해 및 관계만족과 부적상관이 있었고 여학생의 관계만족을 유의하게 예언할 수 있는 변인이었는데, 이는 일련의 선행연구(Arrindell et al., 1989; Parker, 1979)에서 아버지가 거부적인 태도

를 가졌을 때 자녀가 사회불안을 느끼고 대인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로부터 거부적인 태도를 직접 경험하거나 타인을 믿지 말라는 훈계를 계속 들어 온 딸이 성장하여 이성친구를 만나게 되면 상대가 약간만 기대와 달리 행동해도 자신을 무시한다거나 멀리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여 관계에 만족하지 않을 수 있다.

아버지의 수용적 양육태도와 자율적 양육태도는 남학생의 데이트 폭력은 물론 여학생의 데이트 폭력 피해와도 부적상관이 있었다. 이는 아버지가 자녀를 수용적이고 자율적으로 양육하면 이들이 데이트 폭력을 가해하거나 딸이 피해를 당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수용적 양육태도는 남학생의 데이트 폭력 가해 및 여학생의 데이트 폭력 피해의 유의한 예언변인이었다. 남학생의 데이트 폭력 가해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가정폭력보다도 더 강력한 예언변인이었다. 수용적 양육방식을 사용하는 아버지를 모방학습한 아들은 이성친구가 자신의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해도 그것을 이해하고 그 행동을 바로 잡기 위해 물리적인 힘으로 신체적 가해까지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아버지로부터 양육된 딸도 이성친구가 자신의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때 분노를 통제하여 상대를 자극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아버지가 수용적이면 심각한 데이트 폭력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자가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상담해 오면서 데이트 폭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신의 신상을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부모에게 알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아버지가 수용적이

라면 데이트 폭력을 처음 당한 딸이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아버지의 양육방식이 통제적일수록 아들의 데이트 폭력에 관한 허용수준이 더 높았고, 아버지가 양육방식이 거부적일수록 딸의 데이트 폭력에 대한 허용 수준이 높았다. 통제적인 아버지로부터 양육된 아들은 자신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이성친구의 행동은 조절해야 한다는 신념과, 거부적인 아버지로부터 양육된 딸은 자신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어떤 방식을 사용해서라도 용납하지 말고 거부해야 한다는 신념에 기초하여 데이트 폭력에 관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닌가하고 추론할 수 있다.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가정폭력 목격 경험은 남학생의 데이트 폭력 가해와 여학생의 데이트 폭력 피해의 유의한 예언변인이었다. 한국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경험과 데이트 폭력간의 관계를 탐색한 서경현(2004)의 연구에서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가정폭력 목격 경험은 여학생의 데이트 폭력 피해와 상관이 있었고 남학생의 데이트 폭력 가해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본 연구에서도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가정폭력은 여학생의 데이트 폭력 피해에 대해 아버지의 수용적 태도보다 더 강력한 예언변인으로 나타났다.

실험연구는 아니지만 가정폭력 경험이 데이트 폭력 경험보다 선행되었다는 가정 하에 인과관계를 추정할 때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을 목격했다면 여학생의 경우 데이트 폭력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고, 남학생의 경우 데이트 폭력을 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Molidor와 Tolman(1998)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행하는 폭력을 목격한 딸은 데이트 도중 갈등 상황이 되면 자기방어 차원에서 폭력을 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회학습이론(Bandura, 1977)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폭력을 행하는 부모의 모습 혹은 폭력을 당하는 부모의 모습을 모방하여 실제로 그 모습을 재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Riggs와 O'Leary(1989)의 사회학습이론 모델에서는 가정폭력을 “상대방에게 과격하게 행동할까”를 예측해 줄 수 있는 근원적인 변인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서양에서도 여러 차례 검증하였고 그 결과가 일관되게 도출되지 않자, Kaufman과 Zigler(1987)가 가정폭력과 데이트 폭력의 관계가 학자들이 가정하는 만큼 밀접하지 않다는 주장하였다. 또 어떤 연구자들은 조절변인 때문일 것으로 추론하기도 한다(서경현, 2004; Foo & Margolin, 1995; O'Keefe, 1997; Sigelman et al., 1984).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양육태도를 포함시키면 아들의 데이트 폭력 가해의 변량을 5%가량 설명할 수 있지만, 딸의 데이트 폭력 피해의 변량을 약 10%가량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결과는 딸의 데이트 폭력 피해를 예방하는데 아버지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각한 수준의 데이트 폭력을 당하는 것은 대부분 여성들인데 그런 여성들은 데이트 폭력 가해자와 결별하더라도 심리적 후유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한다. 게다가 의외로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도 결혼까지 가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런 여성들은 평생 피해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런 피해의 가능성을 아버지가 10%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것은

딸을 둔 아버지들이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한국 대학생 모집단을 대표할 수 없다. 둘째, 본 연구를 위해 가정폭력과 데이트 폭력을 측정하는 방식 중에 갈등척략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이 측정 방식이 완전하다고 할 수 없다. 셋째, 실험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로 인과관계를 완벽히 결론지을 수 없다. 이와 같이 해석의 제한이 있지만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건전한 연인관계를 형성하고, 데이트 폭력과 더 나아가서 가정폭력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아버지의 양육방식에 의한 영향이 연인관계를 형성하기 훨씬 전부터 있어 왔고 데이트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목격한 경험도 연인관계나 데이트 폭력보다 선행한다고 가정하고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도 있겠지만, 부모의 양육방식과 가정폭력이 연인관계와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검증할 수 있는 종단적 연구가 수행되었으면 한다.

참 고 문 헌

- 권순명 (1993). 지각된 양육 경험과 자아정체감 및 통제 귀인간의 관계.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정란 (1999). 대학생의 이성교제 중 폭력과 대처 행동.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경주, 오경자 (2002).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임상, 22, 29-43.

- 서경현 (2002). 청소년들의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사회학습적 변인들과 분노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 1-15.
- 서경현 (2004).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과 가정폭력의 관계에서의 성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 147-162.
- 서경현, 김봉진, 정구철, 김신섭 (2001). 대학생들의 데이트 폭력과 예측변인. 대한여성건강학회지, 2, 75-98.
- 서경현, 이경순 (2002). 데이트 폭력 경험자들의 분노, 정신병적 경향성 및 중독성.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7, 353-369.
- 서경현, 이영자 (2001). 고등학생들의 데이트 폭력의 예측변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7, 91-106.
- 안귀여루 (2001). 성장기에 부모의 배우자 폭력에 노출된 경험과 초기 성인기의 적응. 한국심리학회지:임상, 20, 679-695.
- 오경자, 양윤란 (2003). 청소년기 사회불안의 발생과 유지의 심리적 기제 I: 행동억제기질, 부모양육태도 및 외상경험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임상, 22, 557-576.
- 이경성 (2004). 친밀한 이성관계에서 성격이 관계만족 및 개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여성, 9, 131-150.
- 이경성, 한덕웅 (2003). 결혼적응검사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건강, 8, 679-705.
- 장진아, 신의천 (2006). 부부갈등이 청소년 자녀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 부모양육태도, 사회적 지지의 매개과정.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18, 569-592.
- 허재홍 (2006). 부모양육태도, 완벽주의, 외상경험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18, 593-611.
- Archer, J. (2000). Sex differences in aggression between heterosexual partners: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26, 651-680.
- Arrindell, W. A., Kwee, M. G. T., Methorst, G. J., Van Der Ende, J., Pole, E., & Moritz, B. J. M. (1989). Perceived parental rearing style of agoraphobic and socially phobic inpatient.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55, 526-535.
- Bandura, A. (1977). *Social Learning Theory*. New York: General Learning Press.
- Block, J., & Kremer,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49-361.
- Bruch, M. A., & Heimberg, R. G. (1994).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parental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between generalized and nongeneralized social phobic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8, 155-168.
- Bruch, M. A., Heimberg, R. G., Berger, P., & Collins, T. M. (1989). Social phobia and perceptions of early parental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Anxiety Research*, 2, 57-63.
- Charkow, W. B., & Nelson, E. S. (2000). Relationship Dependency, Dating Violence, and Scripts of Fe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Counseling*, 3, 17-28.
- Comins, C. A. (1984). Courtship violence: A recent study and its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Paper delivered at the Second National Conference for Family Violence Researchers*, Durham, NH. 7-10.
-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1995). Crime in the United States, 1994. Uniform crime reports.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2000). Crime in the United States, 1999. Uniform crime reports.

-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 Follette, V., & Alexander, P. C. (1992). Dating violence: Current and historic correlates. *Behavioral Assessment, 14*, 39-52.
- Foo, L., & Margolin, G. (1995). A multivariate investigation of dating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10*, 291-305.
- Foshee, V. (1996). Gender differences in adolescent dating abuse prevalence, types, and injuries. *Health Education Research, 11*, 275-286.
- Henton, J., Cate, R., Koval, J., Llyod, S., & Christopher, F. (1983). Romance and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Issues, 4*, 467-482.
- Higgins, E. T. (1989). Self-discrepancy: A theory: What patterns of self-beliefs cause people to suffer? In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2, pp. 93-136). NY: Academic Press.
- Hird, M. J. (2000). An empirical study of adolescent dating aggression in the U. K. *Journal of Adolescence, 23*, 69-78.
- Kaufman, J., & Zigler, E. (1987). Do abused children become abusive parent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7*, 186-192.
- Levy, B. (1990). Abusive teen dating relationship: An emerging issue for the 1990s. *Response, 13*, 3-12.
- Molidor, C. E., & Tolman, R. M. (1998). Gender and contextual factors in adolescent dating violence. *Violence Against Women, 4*, 119-134.
- Neufeld, J., Mcnamara, J. R., & Ertl, M. (1999). Incidence and prevalence of dating partner abuse and its relationship to dating practic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4*(2), 125-137.
- O'Keefe, M. (1997). Predictors of dating violence among high school student.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 546-568.
- O'Keefe, M. (1998). Factors mediating the link between witnessing interparental violence and dating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13*, 39-57.
- Parker, G. (1979). Reported parental characteristics of agoraphobia and social phobia.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5*, 555-560.
- Plass, M. S., & Gessner, J. C. (1983). Violence in courtship relations: A southern sample. *Free Inquiry in Creative Sociology, 11*, 198-202.
- Riggs, D. S., & O'Leary, K. D. (1989). Intentional falsification in reports of interpartner aggress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4*, 220-232.
- Riggs, D. S., & O'Leary, K. D. (1996). Aggression between heterosexual dating partners: An examination of a causal model of courtship aggress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1*, 519-540.
- Riggs, D. S., O'Leary, K. D., & Breslin, F. C. (1990). Multiple predictors of physical aggression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5*, 61-73.
- Rohner, R. P., & Rohner, E. C. (1981).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nd parental control: Cross-cultural coder. *Ethnology, 20*, 245-260.
- Sigelman, C. K., Berry, C. J., & Wiles, A. (1984). Violence in college students'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5*, 530-548.
- Smith, J. P., & Williams, J. G. (1992). From abusive household to dating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7, 153-165.

Stets, J. E., & Henderson, D. A. (1991). Contextual factors surrounding conflict resolution while dating: Results from a national study. *Family Relations*, 40, 29-36.

Stets, J. E., & Pirog-Good, M. A. (1987).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0, 530-548.

Straus, M. A. (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75-88.

Thibaut, J. W., & Kelley, H. H. (1959). *The Social Psychology of Groups*. NY: Wiley.

논문접수일: 2007년 1월 9일

게재결정일: 2007년 2월 3일



Influences of Father's Child-Rearing Attitudes and Domestic Violence on Dating Relationship and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Kyung-Hyun Suh Soo-Dong Choi Ik-Hyun Kim
Sahmyoo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father's child-rearing attitudes and domestic violence toward mother on the quality of dating relationship and inflicting dating violence of the male offspring or receiving dating violence of the female offspring. The participants were 490 college students (211 males and 279 females) who had the experience of heterosexual dating relationships, whose ages ranged from 16 to 42 ($M=21.48$, $SD=3.42$). The psychological tests used in this research included the following: Parental Child-Rearing Questionnaire, Lee and Han's Relationship Measures, Straus' Conflict Tactics Scale, and Foo and Margolin's Justification of Violence Scale. Results revealed that fathers' child-rearing attitudes were closely related to their offspring's mutual comprehension and satisfaction in dating relationships. Fathers' child-rearing attitudes accounted for around 15% variance of their sons' mutual comprehension and satisfaction in dating relationships. Especially, qualities of dating relationship of male offsprings whose fathers tried to control them were relatively low. The acceptance and the autonomy showed by fathers were negatively related to receiving dating violence of their female offsprings as well as inflicting dating violence of their male offsprings. The acceptance showed by fathers accounted for the most variance of inflicting dating violence of their male offsprings. Fathers' domestic violence toward their mothers was significant predictor of both inflicting dating violence of the male offspring and receiving dating violence of the female offspring. These findings reit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 of domestic violence and dating violence, and suggest a role of father's child-rearing attitudes for the quality of dating relationship and dating violence.

Keywords : dating violence, domestic violence, father's child-rearing attitudes, quality of dating relationship